익산시, 부모급여 확대 지급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50만원 · 3~5세 어린이집 경비 월 13만8000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의 부모 양육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확대 지급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때 각 가정에 지원되는 보편 수당이다. 가정 양육 아동은 현금으로, 어린이집 등원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기존 수급 대상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증액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바우처 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도 만 3~5세 유아의 경우 전년 10만 원에서 오는 3월부터 13만 8,000원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만 0~2세 영아의 경우 월 2만 원이 지급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익산시의 세심한 배려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요청으로 각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의 놀이 활동과 식사 등 · 하원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대응 '총력'

300여명의 지역 교직원 · 학부모 의견 청취… 익산형 모델 발굴

익산시가 익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발굴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지역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고영훈 서기관의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허전 익산시 부시장과 김복희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정수 도의원, 이동기 원광대학교 교수, 안선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가 패널로 참석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도 진행, 지역 중심 돌봄 교육,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정주체계 구축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익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 토해 익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예방 완충저류시설 설치 '순항'

익산시가 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에 돌입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초기강우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소화수를 임시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유해 물질이 하천에 곧바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1차 차집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폐수처리장 옆 시유지(금강동 일원)로 제1국가산업단지 우수관에서 차집시설 설치 후 차집관로 1.3㎞를 신설해 3,000톤 규모로 저류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75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기술 검토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인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실시설계를 꼼꼼히 검토해 마무리하고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이 ·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군산시, 공직선거법 교육… 소속 공무원 · 이 · 통장 등 500여명

군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이 ·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기별 제한행위와 업무추진 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 규정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관여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금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강태횡 지도계장을 초빙해 공직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이 ·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실제 위반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강태횡 지도계장은 선거 전 각종 행사, 홍보 등이 예정된 업무담당자들과 직책상 선거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 ·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행정지원과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기별 행위 제한 사항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소속 공무원과 이 ·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공직선거법 준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공유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재경 군산시민회, 새해 신년인사회 · 회장 취임식

재경 군산시민회(회장 빈원영)가 지난 19일 신년 인사회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출향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여 군산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해 회장으로 선임된 빈원영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빈원영 회장은 재경 군산시민회의 2024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재경 군산시민회의 발전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기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하였다.

재경 군산시민회원들은 128년 만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며 전북과 군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단합의 의지를 다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도 군산 발전을 염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군산과 재경 군산시민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서해환경, 군산 저소득층 대학 입학생 노트북 지원

지난 19일, 서해환경 이웃사랑회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군산시 저소득층 대학교 입학생들에게 학습용 노트북 지원비로 2,000만원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서해환경 직원들로 구성된 이웃사랑회(회장 김종복)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금액으로, 지난해에도 13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한 바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성윤 대표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학생들이 이번 나눔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정과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환경 이웃사랑회 김종복 회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만경강문화관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익산시 만경강문화관이 만경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일일 강좌 '수(手)수(秀)한 하루'와 상시 체험 프로그램인 '고(Go)고(Go) 만경강문화관'이다.

수(手)수(秀)한 하루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매월 1회 운영한다. 오는 27일에는 친환경 자동차 키 가죽 케이스 만들기, 2월과 3월에는 만경강 식물 세밀화 드로잉이 진행된다.

고(Go)고(Go) 만경강문화관은 교육기관과 시설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예약을 받아 화요일~금요일에 무료로 운영된다. 우드 다용도 꽂이 만들기와 4대강 세계문명 모빌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